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산사의 숲, 생명을 품다

지난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수락산에 갔다. 계곡물은 아직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지만 햇살과 바람은 봄기운이 가득했다.



산사의 숲, 생명을 품다... 는 사람 주변의 숲과 개울에는 어떤 나무와 풀이 자라고, 무슨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어떤 동물과 곤충들이 사는지 사람의 눈으로 살펴보고

사찰숲에 애정 가지라 조언

변의 숲 환경은 과거에 비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정부의 개발지상주의 정책과 대형 불사 같은 불교 내부의 요인 등으로 사찰 주변의 숲 환경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관한다. 사람은 물론 주변 숲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즐거움과 여유를 되찾아 보라고 한다. 자연을 생각하고 산사의 숲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책인 셈이다.

사람생태연구가인 저자는 사찰 숲 환경 파괴를 막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찰 숲의 현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덕분에 나도 책을 읽으며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대는 모습을 처음 봤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도 신기해 추위도 잊고 한참을 멍하니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오래 전, 겨울의 끝자락 네 달인 범용사 숲길에서였다.

파주 보광사, 수원 용주사, 서산 개심사, 공주 마곡사, 구미 도리사, 달성 용연사, 청도 운문사, 울산 석남사, 장흥 보림사, 진도 쌍계사 등 10개 사찰의 숲을 살펴보고 있다. 산이 좋아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혹은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저자

산사의 숲, 생명을 품다 | 김재일 지음 | 지성사 펴냄 | 1만70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주부다.

불교의 여성관을 말하다

불교에서 여성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저자는 오늘날 대두되는 불교의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제시하며, 이런 관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있다.



파불교의 여성관, 대승불교의 여성관으로 나눠 불교가 여성을 논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기에 어떤 시각으로 변화했는지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여성성불의 이해 | 구자상 지음 | 신국판 펴냄 | 1만5000원 이은정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현대인 눈높이 맞춘 '禪'

'선문보장록' 번역한 현각 스님의 '아난의 입 가섭의 마음'

근본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근본을 알려면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 있다.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이 그 책이다. 이 책은 고려 때 진정 대선사 친척 스님이 찬술한 책이다. 최근 <선문보장록>을 번역해 <아난의 입 가섭의 마음>을 출간한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은 <선문보장록>은 현대인들의 근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한다.



현각 스님은 <선문보장록>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선 선법(禪法)의 등불을 가섭의 마음에 점등하셨고, 교화의 바다를 아난의 입에다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친척 스님의 말을 빌려 현각 스님은 선의 특징을 쉽게 풀이했다.

스님은 <선문보장록>은 조사선 위주의 선종이 대세이던 때, 조사선종은 여래선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교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풍조 속에 쓰여졌다'고 말했다. 선학자인 현각 스님은 이 책에서 선문이 교학보다 한 차원 높았다는 친척 스님의 논지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소개했다.

하지만 책이 단순히 교학을 부정하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책은 선의 저변에 교학자를 내세워 선교가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책은 '권상' '권중' '권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권상'은 선과 교학을 상대적 입장으로 간주해 그 차이 및 우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권중'은 교학자가 선문으로 귀의하게 된 내용, '권하'는 제가인들 중 선문에 귀의한 이들의 활동 내용을 적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장애인입니다. 외적 장애 못지 않게 내적 장애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책은 이런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총 86칙의 전거를 선지로 풀어낸 '아난의 입과 가섭의 마음'이 어디에 들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책은 선주교종(禪主敎宗)의 입장에서 선과 교학의 일체와 합일을 보여주고 있다.

아난의 입 가섭의 마음 | 친척 찬술 | 현각 역 | 동국대학교출판부 펴냄 | 2만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사람이 그리운 날에는...



"그 집이 무슨 집인가요?" "출가하는 집입니다." "다시 풀 수 없나요?" "장부의 결심인데 어찌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출가를 결심한 스님이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의 만남에서 나는 대화이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이 대화는 책의 저자인 법광 스님의 실화이다. 크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스님들에게도 이런 아련한 추억담이 있었다니, 굳이 책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스님의 성품이 느껴진다.

불가(佛家)에서는 참선하는 스님을 일컬어 '선객(禪客)'이라 말한다. 나그네를 뜻하는 이 말은, 아마도 어느 곳에도 매이거나 집착함 없이 정진하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스님은 선객이란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지는 노을에도 가슴이 설레인다"고 말할 만큼 스님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같다. 그렇기에 자신의 수행담을 영사기가 돌아가는 오래된 영화관에서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는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련하고 애뜻하게 풀어냈다.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글들은 자연스럽게 읽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 그 파장이 없는 내내 따뜻한 정열로 다가오게 한다. 눈에 띄게 특별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책 같으면서도,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옛 사람의 향수가 묻어나는 스님의 수행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禪)적이다. 어려운 말들로 한껏 풀어놓은 재미없는 수행담이 아닌, 사람이 그리게 만들고, 가슴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감동을 선사한다.

선객(禪客) | 법광 스님 지음 | 한결출판 펴냄 | 1만원

참된 행복 찾아 떠나는 길 안내서

'김영로의 행복수업' 영어도 한 번에 OK

행복인 줄 알고 무작정 좇던 것이 일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행복해질 것이라 믿음이 한 순간에 불행으로 바뀌는 상황. 어쩌면 행복과 불행을 넘나들며 갈팡질팡 하는 것, 그대로가 삶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삶일까.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번쯤 하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정한 행복은 뭐지?" 이런 고민에 답을 얻기 위해 미국·영국의 학교에서는 '행복수업'이 진행 중이다. '행복해지려면 이제 수업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삶은 불행해진다.

우리 삶이 행복해지기 위한 지침서들은 세상에 널렸다. 하지만 이 책은 여느 책들과 다른 행복 지침서이다. 저자는 행복수업 시대의 문을 열고자 한다. 수행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은 저자는 귀한 가르침을 찾아 행복의 여행길에 오른다. 수행을 하며 보다, 아파사, 빠드마삼바와, 산띠데바, 아

인슈타인 등 인류의 의식을 향상시킨 분들의 가르침을 찾아 행복 전도사로 나선다. 일반인에게는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려주며, 수행자에게는 수행 자료를 제공해 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책은 단순한 명상집이 아니다. 영어공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편집됐다. 영어를 전공한 저자는 진리의 말들을 부드럽게 영어로 바꿔 영한 대역을 편찬할 수 있었다.

명상과 함께 영어공부도 하고, 행복의 길까지 안내해주는 책은 인생에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만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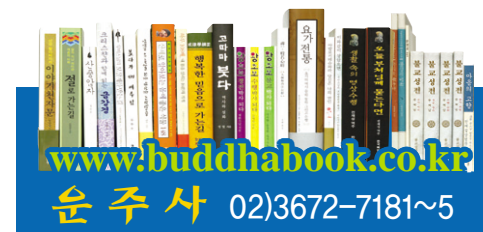
김영로의 행복수업 | 김영로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8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베스트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dvertisement for 'Bonggye Saseryok' (방거사어록) by Daewon Munjaehyun, featuring a portrait of the author and book details.

Advertisement for 'Ehanok' (에한옥)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Bokjuk' (복죽)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pottery and health benefits.

Advertisement for 'Minsokjukyeom' (민속죽염) featur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products and their benefits.